

섬김의 교회는 ...

8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와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 쉬지 않고 나아갑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 ▶ 치유, 회복과 나눔의 공동체입니다.

건강한 믿음 성장

"네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에  
네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요한 3서 1:2

예배 및 모임안내

- 주일예배 Lord's Day Worship / Sunday 12:30 am
- 주일학교 Sunday School / Sunday 11:30 am (뉴 라이프 교회)
- 주일 성경공부 Sunday Bible Study / Sunday 11:00 am
- 금요찬양예배 Friday Service / Friday 8:00 pm
- 새벽 경건회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 to 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 주중성경공부 Bible Studies / Tuesday 8:00 pm (zoom)
- 일대일 제자훈련 Discipleship Classes / Monday 10:00 am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교회위치 Location



800 E. Palatine Rd., Palatine, IL 60074  
847) 691-7846  
www.churchofservant.com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2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환영과 축복	사역과 소식 (교회/교우)
하나님 앞으로	찬양과 경배 / 찬양팀과 함께 예배기도 / 구은강 집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말씀과 결단	성경말씀 민수기 14:36-38 (구약 219쪽) “악평과 분열의 결과를 반면교사로”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 찬송 / 찬송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결단의 기도
헌신과 열매 (봉헌/나눔)	봉헌 오정은 / 최내권 집사 ★봉헌찬송 / 213장, 4절 “나의 생명 드리니”
세상과 삶으로	★찬양 “이 땅의 황무함을” ★축복기도 / 김성배 목사

★ 표는 모두 일어섭니다.

예배시간 10분 전 휴대전화를 끄고, 묵상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금요 찬양 예배

찬양과 기도

성경: 사도행전 2:41-47

묵상 제목: “주께서 더하게 하시니라”

오순절은 예수님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모두에게 임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 제자들은 성령님의 능력을 받았고, 전혀 배우지 않은 다른 언어로 복음을 전합니다. 또 베드로는 성령님으로 충만해 복음을 전하고, 수 천명이 회개합니다. 성령님이 불꽃처럼 또 바람처럼 내린 이날, 비로소 신약 교회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심각하게 생각하여 볼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이 120여 명이나 되었다고 기록돼 있지만, 과연 이 숫자는 충분한 숫자일까요?

개역개정은 “모인 무리의 수가 약 백이십 명이나 되더라”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약 120여명 정도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120명이란 숫자가 작은 것인지 큰 것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부활의 첫 열매로 초실절(안식일 다음 날) 즉 주일 새벽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간 이 땅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약 600여 명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고 증언합니다(고전 15:4-8).

1) 열두 제자 2) 오백 형제 3) 야고보(예수님 동생) 4) 모든 사도(70문도) 5) 바울

예수님은 5-600명을 만나신 후, 40일째 되는 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과 함께,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들은 마가 다락방에 모여 마음을 같이 하며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순절 때 모인 무리의 수가 120여 명이었던 점입니다.

나머지는 어디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 중 480여 명은 유월절과 무교절 이후,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들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렇다면 이들은 짧은 시간을 기다리지 못한 것입니다. “기다리라”는 명령을 잊어버리고 (혹은 무시하고) 다시 삶으로 가졌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 결과 이들은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라”는 요엘 2장 28-32절 예언이 실현되는 역사적 현장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들에게엔 잠시 혹했던 부활 이야기, 영생 이야기, 천국 이야기가 그렇게 큰 매력이 없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천국 혼인잔치에 초대받았으니 자신의 일, 세상 일 때문에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들처럼(마 22:1-14) 이들은 천국잔치에 초청을 받았지만 그러나 택함을 입지는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체도 보지 못하고 그의 구세주 되심을 믿고 있습니다.** 2천 년 전과 비교하여 볼 때 우리의 객관적 신앙 조건은 분명 이들보다 훨씬 더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만 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심’과 또 ‘죽은지 사흘만에 부활하심’을 믿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습관처럼 입술의 고백은 할 수 있을지언정, 복음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았던 열두 사도처럼 실천하는 신앙을 갖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요즘 주변 신앙인들을 보면 입술의 고백이 마치 무슨 주문을 외우고 있는 것처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지 못하고 믿어야 하는 우리들은 지금부터라도 부활이 가지는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는 성경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것은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한 사도들에 의한 증언이 기록된 성경이 있다는 점입니다. 즉 기독교 신앙의 기초에는 사도들의 증언이 핵심을 차지한다는 점입니다. 480여 명은 예수님의 부활체를 만나보고도 믿는 특권을 포기하였지만, 우리는 성경 기록만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지런히 성경을 읽는 것은 기독교인들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 3년을 보내고 또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도들의 한결같은 증거에 힘입어 오늘날의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과 또 미래를 향한 약속에 대하여 먼저 자신이 잘 알 뿐 아니라, 남들에게도 증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벧전 3:15).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한 가지 즐거운 소식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점입니다(요 14:2). 그래서 천국은 잔치에 자주 비유됩니다.

여러분 모두 120문도처럼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준비해 놓으신 천국 잔치를 즐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크리스천 투데이 2022년 6월 2일, 마가의 다락방에 오지 않은 480명은 어디에)

섬김의 교회를 방문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후, 점심 친교를 통해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소식 5월 가정의 달 /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1. **가정의 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나누는 가정과 성도가 됩니다.
2. **선교주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주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교회와 성도가 됩니다.
3. **선교주간** 복음전파, 교회와 성도를 세우는 선교/말씀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충만, 안전과 건강, 가정과 자녀)
4. **사역친교** 예배/찬양/관리사역을 점검합니다.
5. **학기말/방학** 자녀들/학생들의 학업, 진학, 진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6. **성경읽기운동** 성경 일독 운동이 계속됩니다.
7. **중보기도** 매일 낮 12시, 저녁 9시 다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구체적인 기도제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8. **나눔과 교제** 주일 점심 친교 후, 다 함께 교제합니다. (3:00-4:00pm)
9. **예배** 생명력 있는 예배를 위해 전심을 다 합시다.
10. **문서전도** 매주 목요일판 “교차로”에 섬김의 교회가 참여하는 **복음메시지**가 실리고 있습니다. 시카고 이민사회의 믿음회복과 복음전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우소식**

**생일축하** Jacob Kim(7) 구 민(8) 구민우(16) 최내권(20)

**5월 사역**

선교주일/사역친교(26, 예배/찬양/관리) 선교주간(26-6/1) 만남/나눔 주간(6/3-9), 성장/성숙 주간(6/10-16) 소금빛 된 주간(6/17-23) 선교주간(6/24-29) 선교주일(6/30)

**한 주간의 말씀** 에베소서 4:15, 16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정탐꾼들은 하나 뒀을 깨뜨렸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지 않았다.

불평하며 악평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나누었고, 이스라엘과 모세를 나누었다.

예수님을 따라, 나누졌던 돌을 하나가 되고, 화평하게 만드는 사명을 감당하자.

말씀요약

10명의 정탐꾼들은 형제자매들을 이간하며 원망하게 만들었다. 믿음과 사랑을 잃은 이들의 징벌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공의로운 분되심을 확인한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거룩하게 흠 없게 만드신다.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서로 다르지만 성도가 하나가 되도록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섬기자.

가나안을 살펴보고 돌아온 정탐들은 이스라엘을 선동하였고, 모두가 하나님을 원망하였다. 하나님은 불순종과 불신앙을 징벌하셨다. 첫째, 악평 때문이다. 이해할 수 없을 때, 의문을 갖질 수 있다. 좋지 않은 것을 악평할 수 있다. 하지만, 믿음과 순종이 우선이다. 조상들이 받은 약속, 기다리던 축복을 바로 앞에 두고, 현실과 경험을 앞세우며, 하나님을 불신하며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 10개의 이적을 행하시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우리가 삶에 지쳐 부르짖을 때, 반듯이 응답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자.

둘째, 이스라엘과 모세를 갈라놓았기 때문이다(36절). 악평은 갈등과 분쟁으로 이어진다. 하나님은 이런 이간질을 싫어하신다. 분쟁과 분열은 성령님을 거스르는 육체의 소욕임을 기억하자. 성도와 교회가 하나 되도록 화평을 이루자. 믿음을 잃고, 불평과 악평하며, 분쟁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폈다. 나눔을 하나로 묶으며, 화목하게 만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자.

성부께서 죄인들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 값을 지불하시고, 성령께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을 믿도록 역사하셨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다향가지 않아, 성도와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다. 하나님이 징계를 시작하시기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하자. 세상의 소금과 빛인 사명을 감당하자.

1. **성장과 열매:** 2024년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 공동체의 사역들이 열매를 맺도록
2. **영성:** 삶 속에서 말씀묵상과 기도로 영성 훈련하도록
3. **가정의 기도 제목:** 사업의 어려움, 파병된 자녀의 안전, 새로운 준비를 하는 자녀, 건강의 회복
4. **가족:** 연로하신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5. **교육사역:** 자녀들의 영적성장과 Youth Ministry를 위해
6. **Oikos 가정사역:** 소그룹 사역으로 회복과 전도의 은혜를 누리도록
7. **선교지와 선교사:** 네팔/뉴욕(박은주 선교사)
8. **이웃 교회들과 연합사역:** 삼릉교회/찬양이야기 사역

선교 소식 (네팔/뉴욕, 박은주 선교사)

1. 뉴욕 문화/봉사/기도 센터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데 속히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2.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 예수님의 복음만을 전하는 참된 사역들과 사역자들이 되도록
3. 가족들의 구원, 영적으로 성장하며, 육적으로 지치지 않고, 맑은 사역에 충성하며, 분별력을 가진 삶을 살도록

예배 섬김이

주일 기도 인도	5월 19일 김훈태 집사
	26일 구은강 집사
주일 봉헌 인도	6월 2일 박진성 집사
	6월 9일 김윤경 사모

주일 예배 안내	5월 19일 최내권/오정은 집사
	26일 오정은/최내권 집사
섬기는 사역자들	6월 2일 구 민/최선윤 집사
	6월 9일 최선윤/구 민 집사
	5월 김훈태 집사

섬기는 사역자들

지도목회자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교육전도사 (Youth Minister) Jacob Kim 전도사  
찬양인도자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